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허 남 춘**

- I. 머리말
- II. 한국문화의 세계화 과정
- III. 제주문화의 세계화 방안
- IV. 제주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 V. 맺음말

국문요약

‘세계화’가 시대적 소명이 되어가면서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문화산업의 근간처럼 말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 단위의 문화를 논하는 단계에서 하위 단위의 지역을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나 세방화(세계지방화, Glocalization)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문화도 세계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이 예술·전통·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색되었고, 지난 세기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공을 보인 점도 인정되지만 아직 초보 수준이다. 음악·드라마·영화에서 ‘한류’를 형성하고 그 상승기류를 타고 한식이 부상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제주문화의 세계화 전략도 그 정체성 규명에서 시작돼야 하고, 제주문화의 힘 내부에 작동하는 원리를 찾아야 한다. 문화의 이론화가 선행 작업이어야 한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다. 그래서 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문화의 이미지화·정보화·기호화를 통해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를 활용하여 기획하고 연출하고 공연할 인력양성과 문화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삶의 총체적 현상으로서의 문화를 산업화하는 데도 나서야 하니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이 21세기 화두다. 제주는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가 풍부하다. 특히 구비 신화는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장수식품과 음식문화, 해녀를 위시한 해양문화, 돌하르방과 돌담과 같은 돌 문화도 세계인에 친숙하면서도 제주만의 독특함을 간직하고 있어 세계화가 폭넓게 진척될 수 있다. 세계화의 단서가 있으니, 문화 연구자 양성 과 이론화 작업과 같은 문화 토대 사업이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주제어 : 문화, 세계화, 정체성, 한류, 공동체성, 신화, 스토리텔링, 축제, 문화이론, 문화 콘텐츠.

I. 머리말

제주문화의 세계화란 화두를 들고 우선 ‘세계화’란 용어가 주는 섬뜩함을 우선 떠올린다. 온 세상이 세계화를 운운하면서 세계화에 뒤처지면 국가와 지역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세계화의 조류는 국가 간의 간격을 좁히고 문명화의 시간 차까지 좁혀 나갔다. 미국 또는 서구와 대등한 정도의 문명적·경제적 위상을 얻어가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소멸되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문화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문화 보호주의만으로는 세계화에 대처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문화 개방과 문화 수출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문화 세계화는 문화 지역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미국문화의 지배적인 획일주의를 경계하면서, 중심부 문화가 주변부로 지역문화가 세계문화로 이동하는 쌍방향의 과정을 인정하게 되었다. 타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자기 문화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기 문화를 세계 속에 소개하면서 상호 소통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거나,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 시장에 상재해서 성공한 것보다는 망한 것이 더 많다. 가장 제주적인 것을 아직 세계 시장에 상재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주문화의 세계화는 선부르다는 느낌이 든다.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잘 찾아내 잘 포장하여 세계에 내놓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제주에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몇 가지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로마 신화가 세계 최고라면, 구술되어 전하는 것으로 제주 신화가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다. 장수의 땅으로 알려졌으니 제주의 음식 또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 ‘강술’이란 고체 술은 세계에서 희귀하다. 세계문화 유산과 자연유산을 품은 제주의 관광문화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기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전에도 제주를 세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패한 기억이 생생하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는 모색, 그래서 ‘영어공용화’를 내건 망국적인 사건도 있었다. 자기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곳은 전에 영미의 식민지였고 말이 여럿이어서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 뿐이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그런 경우인데, 국민의 동질성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영어 습득 정도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 있다.¹⁾ 세계화를 위해 영어로 공용어를 삼아 잘 하자는 것은 망상일 뿐이었다.

10여 년 전에 <세계섬문화축제>를 시도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발상과 도전정신은 좋았는데 자기 점검이 미흡해서 더 진전되지 못했다. 세계문화를 주도할 마인드와 소통방식의 미숙, 기획과 연출의 부재가 실패의 원인이었다. 10여 년 전에도 몇몇 학자가 ‘세계 섬문화 포럼’이나 ‘아시아·태평양 문화공동체’를 근간으로 ‘제주문화의 세계화’²⁾를 주장한

1)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204쪽.

2) 김동전, 『제주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집,

적이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제주가 주체가 되어 문화 정체성을 연구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은 도외시한 채 문화를 상품화하여 빨리 성과를 얻으려는 성급함이 앞섰기 때문에 세계화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새롭게 세계화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우선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잘 이론화·체계화하여 적절한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대표 축제나 공연으로 승화시켜가는 수순을 잘 이룩해가야 할 것이다. 제일 우선적인 것은 문화 주체의 확립이고, 둘째는 문화 창조 인력의 확충이고, 셋째는 정체성의 수립이다. 제주를 세계의 중심에 놓고 정체성을 연구하는 인재를 두루 활용하여 문화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세계화도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세계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어 서술될 것이다.

구체적인 세계화 대상은 굿과 신화, 음식, 스토리텔링, 축제, 공연물이다.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신화를 구연하는 심방의 굿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천지개벽으로부터 우주만물의 생성과 마을과 공동체의 역할까지 세세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리고 신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힘’은 제주의 자랑이다. 이런 문화 자원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이 논문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II. 한국문화의 세계화 과정

세계화는 국가 간 인력, 자본, 지식, 정보의 교류와 이동이 본격화되어 국가단위를 초월한 상황을 의미한다. 문화도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확산되는데, “이에 따라 민족이나 국가 단위가 아닌 세계 전체, 시대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등장하게 되었다.”³⁾ 이런 현상은 혼란과 충돌을 야기하지만 문화의 세계화 현상은

역사문화학회, 2003, 342쪽.

3) 김유중, 『한국문화의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고찰』,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257쪽.

이미 대세가 되었다. 미국문화를 중심으로 밀려드는 세계화 물결은 약소 국가들의 문화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화권 간의 심각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야기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맥도널드와 코카콜라와 허리우드식의 식민주의라 하겠다. 미국과 서구사회의 문화 침탈과 함께 자본의 침탈이 동반되었으니 WTO나 FTA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신사대주의자들의 서구화 경향은 제국주의 외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의 세계화는 국가의 다양성과 민족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힘의 우위에 뿌리를 둔 획일화와 경쟁력에 의한 세계 제패를 정당화하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맞장구치는 까닭이다.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했지만, 새롭게 세계화를 규정하면서 세계화의 모순에서 벗어나고 있다. 획일화·보편화·동질화 경향의 문화 제국주의 성격과 지역적 다원화·특수화·이질화를 고려한 혼용화의 경향이 세계화의 두 얼굴이다. 우리도 지역화에 비중을 두면서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 민족문화의 세계화는 지배가 아니라 ‘상호 교류·이해·협조’로 규정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문화의 문화제국주의적 성격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문화의 천박성과 타락성도 존재하지만 후기산업사회와 테크놀로지를 이끌어가는 첨단문화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김성곤은 “미국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이나 타문화 포용, 또는 민주주의나 반체제 정신 등은 대단히 유익하여 유럽의 지성들과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⁶⁾고 말한다. 다양성과 민주주의 정신 일부는 긍정할 수 있지만 일부는 온당치 않다. 독재를 지원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데 앞서고 타문화를 압살하는 획일주의적 성향은 극복의 대상이어야 한다. 세계 속의 한국화

4) 임재해, 『국학의 세계화를 겨냥한 이론 개척과 새 체제 모색』,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2005, 435쪽.

5) 박갑수,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그 방안』, 『선청어문』 34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6, 9쪽.

6) 김성곤, 『한국문화와 문화의 세계화』, 『Comparative Korean Studies』 9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01, 72쪽.

는 우선 미국화와 영어화를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눈을 아시아로 돌려 동아시아 국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문화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⁷⁾

세계화 시대는 개방성·전체성·보편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가 일방적 획일화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반면 세계화 시대 다문화 상황에 적합한 자기 문화 정체성은 차이를 존중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조화와 공존이 가능하다. 자기 고유성에 대한 자부심에 타 문화 존중과 포용의 정신이다.⁸⁾ 즉 한국문화의 전통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라 하겠다. 세계화 관점에서 바라본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동일시 과정이다. 외부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부족한 자아를 보완하고 새로운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정체성 수립 과정이다.⁹⁾

그것은 문화 제국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여 세계문화의 다원성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우리 문화가 세계문화에 녹아들어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보급·이해시킴으로써 세계인들과 상호 교류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한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¹⁰⁾

김형민은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을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찾고자 한다. 예술문화, 생활문화, 전통문화, 언어문화, 학문, 생산기술, 관광문화 분야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제주가 주목할 부분은 해녀물질 등 생활

7) 김유중, 『한국문화의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고찰』, 262-264쪽. 그는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원주의를 구별하여, 문화적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을 인정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우리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하지만, 아울러 상대를 알리는 노력과 상대국의 장단점 분석 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8) 오지섭, 『세계화 시대 한국문화의 정체성』, 『인간연구』 14집,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12-13쪽.

9) 현택수,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한국학연구』 제20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4, 185쪽.

10) 김형민,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 방안』, 『전북대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심포지움-한국문화의 정체성과 그 세계화 전략』, 전북대 국제문화교류연구소, 2011, 11쪽.

문화와 제주 곳 등 무형의 전통문화, 그리고 제주의 주요 산업인 관광에 정신을 불어넣는 관광문화 분야일 것이다. 그는 세계화 전략을 다음의 열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 가) 세계문화란 거시적 조망 속의 우리 발견
- 나) 문화교류 정책 개발, 전담기구 확충
- 다) 한국어 교육 강화
- 라) 비교를 통한 장점 발견, 문화요소 발굴
- 마) 외국어 습득
- 바) 외국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학 보급
- 사) 외국 유학생 유치
- 아) 외국에 있는 동포 활용
- 자) 소개 책자 개발 보급,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차) 문화관광 상품 개발¹¹⁾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계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화 경향이다. 국가·민족·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중심부 문화가 주변부로, 지역문화가 세계문화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문화의 세계화는 지역 정체성을 부흥시킨다.¹²⁾ 세계화는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밀

11) 김형민, 위의 논문, 13-14쪽. 박갑수 교수의 한국문화 세계화 방안도 김형민 교수의 것과 비슷한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위의 논문, 23-28쪽).

- ㉠ 국제교류 기구 확충, 정책 개발
- ㉡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개선과 강화
- ㉢ 문화교류 활성화
- ㉣ 한국문화 보급 지원
- ㉤ 한국문화 책자 개발 보급
- ㉥ 문화강좌, 연수회 개최
- ㉦ 한국문학, 문화 도서 보급
- ㉧ 상품 소개 보급
- ㉨ 문화관광상품 개발
- ㉩ 재외동포 문화사절로 활용
- ㉪ 매스컴 활용
- ㉫ 기업의 문화 보급

어내리면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압력을 창출한다.¹³⁾ 세계화에 대해 배타적이고 지역문화에 대해 보호주의적 입장이 새로 생성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지역화가 강화됨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화와 지방화의 양방향 운동성을 한국문화와 제주문화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한국문화는 세계화를 하면서 동시에 지방화에 주목할 시기에 와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과거 식민지는 독립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룩해 낸 제3세계는 자국의 문화를 창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제3세계의 국가로부터 소외되거나 억압 받는 민족 혹은 지역인 제4세계의 문화를 엿보는 일이 중요하다.

민족국가 내부에 포함된 이질적인 소수집단을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민족국가는 단일체가 아니라 다원체이고, 한국적인 것은 지방의 총체다. 한국문화는 소수집단의 문화를 배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동일 교수는 “국가가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단일주권의 시대가 된 것은 근대의 불행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미래 또한 현재와 같지 않을 것이다. 중세는 국가 이상의 단위인 문명권, 국가, 그 아래의 단위인 지방이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삼중주권의 시대였다. 근대 극복의 다음 시대는 거기다 세계 전체를 더 보태 사중주권 시대가 되어 마땅하다.”¹⁴⁾고 했다. 한국의 정체성은 위로 동아시아, 아래로 지방을 함께 인식하는 데 있었다. 21세기 한국의 정체성은 위로 아시아와 세계, 아래로 지방을 함께 인식하는 데 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지방화와 함께 수행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김형민의 세계화 전략에서 제주는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 가)에서 한국문화 정체성에 대응하는 제주의 정체성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작업이 <제주문화사>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에서 국제교류재단과 공조 사업을 떠올렸고, 다)에서 제주어 활용 방안, 라)에서 한국, 아시아와의 비교 연구, 아)에서 재일제주인 활용 방안, 차)에서 문화관광을 활성화할 대표 공연물을 떠올렸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운동을 접하게 되면 제주문화의 세계화 방안도 더욱 구체화될

12) 현택수, 위의 논문, 178쪽.

13) 앤소니 기든스, 박찬욱 역, 『질주하는 세계』, 생각의 나무, 2000, 47-48쪽.

14)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198쪽.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계화 사업에 관한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정부가 6대 국가 브랜드로 한글, 한복, 한지, 한국음악, 한옥, 한식을 정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사실 위의 여섯 가지도 서구적 문화의 홍수 속에서 빈사 직전이라 하겠는데, 그나마 한글과 한식은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한글은 그 위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영어가 침투해 학술 용어, 간판, 노래, 심지어 일상대화에서 한글이 사라지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 젊은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 한글은 더욱 참담한 지경이다. 서구적 문화에서 벗어나야 민족과 언어가 회생할 수 있다.

한식은 그나마 국내적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세계 속으로 약진하고 있다. 한식의 장점이 많은 데 비해 세계적 명성을 획득하는 것과 세계화는 더딘 편이다. 전 세계가 미국식 문화에 빠져들고 ‘팍스 아메리카나’ 현상이 세계를 지배했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미국식 재건을 꿈꾸고 있던 우리의 경우는 미국화가 더욱 확실했다고 하겠다. 먹는 것에서조차 서구적 문화에 대해 엄청난 열등감을 갖던 시기가 수십 년 계속되었다. 그 후 미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될 즈음, 身土不二라는 이상한 사자성어까지 유행하면서 한식이 민족주의의 열풍을 타게 되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라는 박동진 명창의 애국주의 발언이 유행어가 되기까지 했다.

나머지 네 개 브랜드인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은 빈사상태인데, 판소리와 사물놀이의 약진에 힘입어 한국음악이 되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음악계 내에서도 현재 한국음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통음악은 이제 그 시대성을 상실하였고, 현대음악은 양식적인 면에서 서구의 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적 진흥책에 의해 한국음악이 부활되었으니 거기에는 민족주의가 깊숙이 국악계에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족주의 강요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것만 중요하고 남의 것은 무시해도 좋다는 식의 일방적인 애호는 민족음악의 성장보다는 파괴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수주의적 편협한 사고를 갖고 문화 획일주의에 사로잡힌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는 문화 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한다.

우리가 서양음악 중심의 문화구조에서 벗어나고, 한국 음악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또한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의 음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 나가는 것은 이러한 문화 제국주의가 각인해 내는 ‘자기부정의 정체성’으로부터 한국 민족을 구출해 내는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돼야 한다. 즉 문화 다원주의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듯이,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은 타 민족의 음악, 문화, 종교, 사회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음악이 세계를 감동시켰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젤틀맨이다. 그러나 그 음악은 미국음악을 한국에서 재생산한 것 정도의 의의가 있을 뿐, 한국적인 음악 요소는 미미하다. 전통음악에 토대를 둔 현대음악이어야 한국적인 것이라 하겠고, 그것의 성공이야말로 한국문화의 세계화라 하겠다. 그래도 싸이의 성공에는 한국적 ‘흥’ 혹은 ‘신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싸이에게서 한국적인 것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서 없이는 폭발적 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그런 논의를 통해 한국 음악에 한국 문화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가미되고, 자기 것을 토대로 하여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전통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세계에 발현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공동체성과 신명(神明)성, 혹은 흥에서 찾는 최근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한국적 정체성을 찾고 ‘흥’을 보편화시킨 난타를 주목하면서 난타의 ‘차이성, 탈중심성, 혼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⁵⁾ 그렇다면 이에 견주어 제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것의 보편화 작업은 무엇이었고, 예술 속에는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 우선 제주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그것의 세계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15) 현택수, 위의 논문, 188쪽.

Ⅲ. 제주문화의 세계화 방안

모든 지역문화는 해방 후 근대사 70여 년 동안 국가 획일주의의 횡포 앞에서 거의 파괴되거나 상처 입고, 그 언어조차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발견하여 지방에서 사는 보람을 찾을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역주의에 의한 문화 자치와 문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자립화, 자치화, 특성화, 재창조, 민주화, 독립화, 연대화 정책’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를 제주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제주어로 소설과 시를 쓰고, 제주어로 방송을 해야 하고, 타자의 용어인 제주를 버리고 ‘탐라’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선행돼야 진정한 제주문화 가치의 확립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21세기는 물질의 풍요가 정신의 파탄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종언이나 문명의 재기 불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불행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이상이나 소망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때이다. 이치를 따지고 가치를 존중하는 학문인 인문학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인문학의 발상과 창조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평가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의 잘못을 시정하고 탈근대의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적 근대를 반성하고 민족적 역량을 간직한 전통에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서 현재의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의 흔들릴 수 없는 성립 요건이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낙관도 보태져야 한다.

제주는 근대를 시정할 다양한 발상과 창조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세계화에 몰두하여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지만, 제주도는 근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전통의 요소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고대적 중세적 사유와 삶의 방식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근대를 뛰어넘을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위대한 터전이다. 특히 우리가 지녔던 인간적 공동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미국 시카고 박물관에는 다음의 글이 써 있다고 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데카르트가 ‘나의 존재’를 부르짖으며 개인의 발견을 근대의 미덕으로 삼게 되었고 근대는 개인의 욕망을 한껏 부풀렸다. 그 결과는 어떨까. ‘나’는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실종되지 않았던가.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우리 모두는 실종되고 격차는 더욱 커졌지만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제 다시 ‘우리’를 회복해야 한다. 제주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가능성의 땅이다. 이 공동체 문화는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 바로 제주의 마을 신앙과 더불어 이야기와 민요와 민속이 지켜질 수 있었다. 수천 년 내려온 신앙공동체가 우리를 지켜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자연을 살려 왔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중시되는 미래지향적 가치가 바로 제주의 오래된 과거 속에 있다.¹⁶⁾

1. 마을 신앙과 전통예술

제주는 기록문학이 빈약한 대신 구비문학이 풍부한 땅이다. 민요·설화·무가는 가히 한국의 중심부라 할 만하다. 그런데 무가(巫歌)는 문학적으로 논의할 만한가. 그것들은 지금에도 가치가 남아 있는 것인가. 무가가 무속(巫俗) 혹은 무교(巫敎)의 종교적 논리나 규범을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보편적 삶을 담고 있음을 부인하진 못 한다. 무속은 고대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사회로부터 부족 공동체 사회의 중심 이념이었고, 고대국가가 건설된 이후 천신사상(天神思想)에 밀려 주변 이념으로 떨어져 나가 민간신앙의 주된 장이 되고, 불교와 유교의 중세적 사상이 밀려온 후에도 민중의 애호 속에서 지속된다. 서구적 근대성이 우리를 침범한 이후 무속은 미신으로 전락하여 비합리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지만, 무속의 의의와 가치를 무화시키는 근대의 독선을 무조건 신봉하던 삶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그

16) 허남춘, 『제주의 문화가치 확립 방안』, 『제주발전포럼』 제44호, 제주발전연구원, 2012 겨울, 53-57쪽. 여기에서 1차적으로 확립방안을 궁리해 보았고, 이를 발전시켜 오늘의 세계화 방안을 마련했다.

리고 그 속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가의 가치를 새로이 인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제주도 무속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무속신앙의 모습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마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당굿 등에 대한 기록과 분석, 제주도 ‘큰굿’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실질적 분석, 가정신앙과 조상굿 등에 대한 조사, 심방의 생애와 학습과정 등등 연구 주제는 실로 아직도 풍부하다. 또한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분야(무구, 연물, 춤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도 필요하며, 생업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무속신앙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동시에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 관련 기록물의 축적도 필요한 일이다.

제주문화 보존과 계승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안동에 갔더니 ‘헛제사밥’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안동이라 하면 유교의 본거지이고, 유교식 제사가 잘 보존되고 있고, 당연히 제사와 관련된 의례도 귀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그 의례 음식을 대중적 입맛에 맞추어 바꾸어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헛제사밥이다.¹⁷⁾ 제주의 굿도 굿 나름으로 잘 지켜나감과 동시에 대중적인 입맛을 위해 변용을 시켜야 한다. 굿의 노래와 이야기와 춤과 놀이를 대중적으로 변용시켜 관객을 위한 공연거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굿이 미신이 아니라 삶과 관련된 노래이고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이야기이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는 신명풀이의 놀이란 점을 뚜렷하게 보여줘야 할 때다. 변용해야 제주 굿이 살아난다. 제주 굿이 살아나야 제주의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해지고 제주 땅이 신명으로 들썩거릴 수 있다.

제주 굿법에는 아주 특이한 세계관이 담겨 있다. 굿의 시작에 초감제를 하는데, 여기에는 태초의 천지개벽에서부터 지금 여기의 상황까지를 통시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서두를 장식한다. 또한 우주로부터 대한민국 제주 어느 마을까지, 큰 세상에서 굿하는 장소까지 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굿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면 세상이 형성되는

17) 황경순, 『안동 헛제사밥을 통해 본 전통의 생산과 소비』, 『향토문화』 제18집, 밀양고족보전회, 2003, 47-63쪽.

태도에서부터 생이 다하는 미래까지 시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시적으로 확장된 세계를 온전하게 포착할 수 있다.”¹⁸⁾ 우리 곳 전반의 특성을 만든 것이지만, 한반도 내에서 곳은 소멸 직전이고 제주만이 그 전통이 온전할 뿐인 점과, 제주 곳의 초감제에서 천지개벽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다면 통시적인 전망 속에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안목은 제주 곳의 특징이라 하겠다. 과거 역사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할 일을 구상하듯이, 제주 곳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 전망을 구상할 수 있다. 이 미래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주에서는 곳의 이론화·체계화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2. 신화와 스토리텔링

제주는 이야기가 풍부한 땅으로 ‘신화의 섬’이라 일컬을 수 있고 기록신화로 그리스·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면 구비신화로 제주가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화를 살려내지는 구호만 있고 구체적 방안은 없다. 지금도 심방들에 의해 불리는 살아 있는 신화가 이처럼 풍부한 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는 책 속에만 있다. 그러나 제주 신화는 현장에 살아 있다. 그 신화를 믿고 현실 속에서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는 제주도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신성하다. 제주는 세계 신화의 수도이다.

제주에는 천지가 만들어지는 창세신화가 있는데 ‘천지왕본풀이’라 한다. 천지왕이 지상의 총맹부인과 결합하여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는데, 아버지는 금세 떠나버리고 아이들은 성장하여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박씨를 심어 그 넝쿨이 하늘에 가 닿자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재크와 콩나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천지왕본풀이>는 모른다. 자기 것은 잘 모르고 남의 것만 아는 천박한 세상이었다. 이제 제주 신화를 가르치고 하늘과 땅의 소통이 지닌 의미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야 한다. 해와 달이 둘이

18) 임재해, 『국학의 세계화를 겨냥한 이론 개척과 새 체제 모색』,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2005, 437쪽.

었는데 해와 달을 하나로 만든 이야기에서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제주 신화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제주 신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심방의 이야기를 잘 채록하고, 연구해야 한다. 같은 제목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조금씩 이본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통의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충실하게 연구해야 한다. 그 속에 담긴 인류의 지혜-과학과 철학-를 발견해야 한다.¹⁹⁾ 그 속에 담긴 원시적 고대적 사유체계를 밝혀 인간의 삶의 궤적을 밝혀야 한다. 제주 신화가 그런 신비를 감추고 있다.²⁰⁾ 이 연구를 위해 많은 제주문화 연구자가 양성되고, 거기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과거에 지나쳐버렸던 지혜를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그 다음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를 통합하여 정전(正典, canon)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전을 토대로 유아용, 어린이용, 중고생용, 일반용 이야기가 새로 씌어져야 한다. 또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배포돼야 한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 신화 작가와 번역가를 많이 키우고 밥을 먹여야 한다. 연구자와 작가가 많아야 그때 제주 신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를 원천으로 삼아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원천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에 대응할 수 있는 한샘뭇씀(one source multi use)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시 스토리텔링 작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제주도가 만들고 그 열매를 후손들이 따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자연도 아름답고 문화유산도 풍부한데, 특히 신화가 탄생하여 살아 있는 섬으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19) 김현선, 『구비문학과 철학의 상관성』, 『구비문학연구』 13집, 한국구비문화회, 2001. 여기서 구비전승의 철학적 의미를 규명하지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신화의 구비전승인 제주도 본풀이와 같은 신화 형태 속에서 인류 최초의 철학을 찾아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아냈다.

20) 나가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사이, 2003, 20-30쪽. 신화는 인류 최고(最古)의 철학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3. 제주음식문화 내세우기

제주는 지역의 풍토, 자연조건, 관습, 종교에 기인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음식도 나름의 독자적 음식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웰빙 바람을 타고 유기농, 천연재료,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는 매력적이다. 2차산업이 빈약한 산업구조 덕분에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고 제주의 농수산물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만의 흑돼지, 말고기 육류가 있고, 전복, 옥돔, 자리돔 등의 어류가 있고, 밍(모자반), 툇(툇) 등의 해초류가 있고, 물회와 같은 독특한 요리법도 관광객의 관심을 끈다.

제주의 음식은 생태적 먹을거리이며 웰빙음식이며 육지와 변별되는 독자적 음식문화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주 음식이 웰빙이라는 이름의 사치로 변질될 수도 있다. 유기농 야채가 일반 야채보다 비싼 값에 팔리고, 결국 부자들의 먹을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웰빙(well-being)의 기본적 정신은 ‘잘사는(부자로 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잘 사는’(인간답게 제대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웰빙 대신 굿빙(good-being)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현대의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음식문화가 낳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슬로푸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조리법을 중시하고 친환경적 먹을거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웰빙 혹은 굿빙의 한 방식이라 하겠다. 느림은 단순히 빠리의 반대가 아니다. 환경, 자연, 시간, 계절과 우리 자신을 존중하면서 느긋하게 사는 것(파올로 사투르니)이고, 이렇게 느리게 사는 법을 현대 도시적 삶에 적용시켜 ‘슬로시티’운동이 전개되었다. 제주가 지향해야 하는 ‘웰빙 음식문화’와 ‘생태체험’은 이 슬로시티 운동과 맥이 통하고 있다.²¹⁾

제주의 음식문화 운동은 슬로시티운동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제주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담긴 음식기행과 생태체험을

21) 오동훈·홍정의, 『한국형 슬로시티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도시행정학보』 제 22집 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277-279쪽. 여기에서 청산도와 담양의 슬로시티 사례를 잘 소개하고 있다. 슬로시티 운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손대현·장희정, 『슬로시티에 취하다』, 조선앤북, 2012.

결합하면 좋겠다. 즉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제주의 역사·신화·민속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전통문화와 제주의 삶이 동화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체험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오감의 발견이고 해방이다. 상품미학, 가상공간, 교환가치에 의한 현대문명은 그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데, 그 허위의식을 고발하여 소외되고 분열된 우리의 정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미적 관점이 필요하다. 오감의 발견은 우리의 미적 관점을 가능케 한다. 오감에 충실한 생태적 삶은 인간을 풍요롭고 충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제주의 특별한 음식은 죽·떡·국이 있다. 죽과 떡은 쌀이 아닌 잡곡으로 만든다. 애초 제주에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조나 수수나 메밀떡이 널리 쓰였다. 그리고 전복이나 문어 등 해물을 넣은 죽과 콩죽이 유명했다. 이것들이 이제는 웰빙 식품이 되었다. 가난 때문에 선택한 음식인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 널리 보급될 만한 음식이 되었다. 옥돔미역국이나 갈치국처럼 싱싱한 해산물을 이용한 국도 중요하지만, 자리물회와 같은 물회가 미래지향적 식품이다. 간단한 조리법도 중요하고 밥과 국만으로 끼를 구성하는 간결성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반찬을 차리고 손이 가지 않은 것들을 마구 버리게 되는 한정식류의 폐단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단품식품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제주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제주의 일상식 조리법을 상품화하는 정황을 두고 말한다면, 가짓수가 많지 않은 것에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꾸밈새가 단순한 것에서 꾸밈새를 화려하게 하고 음식 데코레이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리시간이 길지 않은 것에서 우러난 맛을 지향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양념을 쓰지 않는 것에서 갖은 양념을 하는 것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일상의 음식문화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자연의 맛을 느끼는 것으로 다시 변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과소비, 지나친 소요 시간, 길땀만을 추구하는 경박성, 인공미를 벗어나 간결미와 자연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음식문화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명제가 놓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일상식 문화는 ‘오래된 미래’이다.

제주의 무속 제사에는 떡을 고일 때 해와 달과 별을 차례로 올린다.

이런 풍속은 유교식 제사로 옮겨와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제사나 명절에 쓰는 떡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 절편은 동그락 곤떡이라 하는데 해(日)를 상징하고, 솔벤은 들반착떡이라 하는데 달(月)을 상징하고, 우 짝은 지름떡이라 하는데 별(星)을 상징하고, 전은 구름(雲)을 상징한다.²²⁾ 제편(시루떡)은 땅(地)을, 은절미(인절미)는 밭(田)을 상징한다고 하여, 제편 위에 은절미를 놓고, 그 위에 절편-솔벤-우 짝 순으로 떡을 고인다.

땅으로부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순서대로 진설하여 우주를 형상화하고 있으니, 제주의 의례음식에 담긴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바로 우주의 정연한 배열과 조화를 구축하여 인간세계의 질서와 평온을 기원하는 일이 된다. 음식이라는 것이 우주의 기운으로 탄생하였고, 각각의 우주를 상징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우주인 몸의 기운을 북돋는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제주의 음식은 천지와 일월이 탄생하던 당시의 우주의 질서를 담아내려 하고, 자연의 순행으로 땅에 질서와 풍요가 도래하길 바라는 고대적 심성을 담고 있으며, 오래된 과학과 철학을 담고 있다.²³⁾ 음식 속에 이런 우주와 철학을 보여주는 경우가 또 어디 있던가.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담아 대표적 음식을 꾸준히 개발해 나간다면 제주 음식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4. 이야기·음식을 활용한 축제

제주의 지역축제 중 음식축제는 여럿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기획된 축제는 거의 없다. 제주는 음식과 이야기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한다. 제주의 전통음식은 가공식품이 먹을거리의 70% 수준인 현실에서 천연식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웰빙식품인 제주 음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신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해, 제주는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돼지고기, 말, 자리돔, 감귤 등 음식에 이야기를 입혀 대표 축제를 키워야 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22) 김지순, 『제주도의 음식문화』, 제주문화, 2001, 75쪽.

23) 허남준 외, 『제주의 음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7, 91-92쪽.

제주의 대표 축제 중의 하나인 ‘들불축제’도 다채롭긴 하지만 이야기가 없다. 들불농기란 밭과 목초지의 병충해를 방지하려는 제주 민속문화이고, 들불축제는 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대규모 불꽃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들불과 연관된 것은 별로 없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불’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한다. 제주에는 영감신이란 불의 신이 있다. 이 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여, 불의 신인 영감신이 진노하여 생업에 위협을 받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정성이 보태져 신이 진노를 풀고 풍요를 준다는 스토리텔링을 구상하여 축제 전반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불과 연관된 민속, 특히 쇠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덕수리 불미 민속’ 등을 가미하고, 불에 구워먹는 화식(火食) 체험을 덧붙였다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계승하는 교육적 효과까지 가능하다. ‘들불’의 ‘들’에도 문체의 식을 갖고, 들에 나갈 때 제주인의 도시락인 ‘차룅’ 음식을 소개하고, 들에 나갈 때 휴대한 ‘강술’이란 술도 체험하게 한다면 축제는 다양해질 것이다. ‘강술’은 세계 유일의 고체 술이다. 발효된 가루를 휴대하여 가져갔다가 이 가루를 물에 타면 술이 되는데, 이런 전통은 제주에만 있는 것이고, 최근 독일에서 고체 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정도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축제에 활용한다면 축제는 자기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세기 제주도는 <세계 섬 문화 축제>를 몇 차례 거행한 바 있다.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아이디어는 참신했다. 섬의 문화 모두를 끌어다 보여주려 하고, 박물관식으로 전시하는 욕심을 버렸어야 했는데 의욕만 앞섰다. 한 해에 하나의 주제만을 강화하고 특성화하여 10년을 기획한다면 승산이 있다. 첫 해는 세계 섬의 춤, 다음 해는 세계 섬의 노래와 악기, 세 번째는 세계 섬의 어로작업, 이런 식으로 10년을 계획하고, 10년 단위가 지나면 다시 ‘춤’으로 돌아온다면 이 축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아시아 태평양 섬 위주의 축제를 10년 한 후에 세계 섬 축제로 넘어가는 것도 한 전략이다. 좋은 기획과 연출자를 만나고 좋은 스토리텔링을 가미한다면 제주의 축제는 한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화에도 성공할 것이다.

미국 테네시주의 소도시인 존스보로에서는 이야기 축제가 열린다.²⁴⁾

이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이야기 전통이 풍부한 제주에 접목시켜 보고, 새로운 스토리텔링 기법도 가미한다면 성공 가능성 높다. 여름방학 휴가 기간 제주의 산골 마을에서 제주 신화 들려주기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장의 이야기, 창작한 이야기, 일상 이야기, 괴담, 유행했던 시리즈를 돌아가며 구연하도록 하면, 참여자 모두가 이야기꾼이면서 청자가 되는 참여와 소통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궁극에는 신화로 귀결시키고, 제주 심방의 서사무가 노랫가락에 담긴 신화를 들려주게 된다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

5. 대표 공연 만들기

전시의 공간적 확장이 새로운 미술세계를 열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전시라는 2차원을 깨고 3차원적 개념을 시도한 것이라 하겠다.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예술세계를 열게 된다. 창조적 발상은 공연에도 시도되고 있다. 극장의 탈출이나 야의 공연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발상이 중국의 <인상(印象) 시리즈>다. 그것은 폐쇄된 극장의 가상적 무대 공간을 벗어나 개방된 자연의 진경(眞景)을 공연무대로 활용한다. 그리고 무대가 지나는 은폐의 개념을 개방으로 치환하여 실재(實在)의 감동을 창출한다.²⁶⁾

<인상(印象) 시리즈>의 성공은 장이머우(張藝謀)가 총감독을 담당하

24) 존스보로에서는 <전국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 1973년 이래 매년 10월 열리고 있고, 일리노이대학 정보대학원도 정기 스토리텔링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임존성 이야기나 의좋은 형제 이야기 등을 테마로 삼아 슬로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 참조. 박상진, 『스토리텔링이 지역축제의 매력성과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예산옛이야기축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5) 이미 축제와 이야기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 한 예로 남원 춘향제를 들 수 있겠다. 권은영, 『문화상품화된 축제와 이야기 활용』, 『국어문학』 제50집, 국어문학회, 2011, 47-70쪽.

26) 안창현, 『중국 대형 실경 공연』, 『인문콘텐츠』 제1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87-88쪽.

고 왕차오꺼(王潮歌)가 무대감독을, 판위에(樊躍)가 연출을 담당하는 철삼각(鐵三角) 조직이 있어 가능했다. 첫 번째가 인상 유삼저(劉三姐)였다. 광시 장족 내 추앙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공연을 만들었다. 출연배우는 10대에서 70대까지 60명이었고, 5개 마을의 소수민족이 출연하였다. 관람석은 4,000 명 수용. “산수를 세트로, 농어민을 배우로, 전설을 스토리로!”라는 구호와 함께 2003년 10월 시작되었는데, 5년간 적자에 시달리기도 했다. 천하제일 산수로 꼽히는 계림의 이강(2km)과 주변 12개 봉우리를 무대와 배경으로 삼아 장대한 규모를 느끼게 한 이 공연은 서서히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상 시리즈 2탄이 ‘인상 서호’로 이어졌다. ‘백사전(白蛇傳)’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 만든 이 공연도 3,000석 규모다. 인상 시리즈 3탄은 ‘인상 여강’이다.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500명의 공연단이 10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었다. 배필을 정해주는 풍습 속에서 맺어질 수 없는 연인이 설산으로 들어가 죽음을 택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무를 즐기는 일상, 나시족의 제천의식, 설산을 향한 기원의식 등이 공연된다. 역시 3,000석의 관람석을 설비했다. 인상 시리즈 4탄은 ‘인상 해남도’인데 자연 경관 위주로 스토리가 탄탄하지 못해 실패했다. 인상 시리즈 5탄은 ‘인상 대홍포’이다. 무이산의 차를 재배하는 과정을 이야기로 꾸미면서 옥녀봉과 장군봉의 전설을 가미했다. 공연장에서 3km 이상 떨어진 무이산 바위를 조명으로 비추면서 이것이 무대의 배경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산과 공연장 사이의 계곡과 호수도 무대가 된다. 객석은 역시 3,000석인데 360도 회전되도록 설계되었다.

인상 시리즈는 이야기와 음악과 조명의 결합이다. 전통의상을 입은 소수민족 혹은 주민들이 수상 무대에서 지방 민요를 부르고, 야간에 공연되는 특징을 살려 조명에 의해 환상적인 느낌을 더하게 만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힘’이라 하겠다. 앞에 예를 든 ‘인상 서호’는 허선과 백량자(백소정)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서호 주변에는 ‘양산백과 축영대 전설’을 배태한 유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²⁷⁾ 이 이야기는 제주의 <세경본풀이>의 자

27) 서호 주변의 문화유적인 단교(斷橋)와 뇌봉탑(雷峰塔)은 모두 <임프레션 서호>

청비 이야기와 흡사하다. 현실 제약에서 좌절하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양산백과 축영대 전설’의 통속성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제주의 자청비 이야기는, 고난과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여서 더욱 장쾌하다. 진보적인 여성의 인생 극복과 성취의 이야기가 제주도 본풀이 속에 풍부하다. 이제 그것을 활용할 때다.

그런데 제주에는 마땅한 공연장이 없다. 3,000-4,0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공연장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이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제주 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 전시관> 내에 공연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름과 숲과 박물관과 공연장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공간이라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인상 대홍포’처럼 산과 바위와 계곡과 호수(혹은 연못)를 대형 무대로 삼았듯이 돌문화공원 뒤의 바농오름과 숲과 공원 내 호수와 바위 크기의 오백 장군을 무대로 삼을 수 있으니, 이미 제주도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놓은 셈이다.

제주는 신화의 보고다. 미래 예술 산업을 키우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거대 공연의 주요한 토대가 되는 스토리텔링의 원자재가 그 가능성을 열어 준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힘’이 중요함은 이제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하고 연출할 인재가 없다. 이제 인재를 키울 시기다.

IV. 제주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1. 문화 창조 인력 양성

우리는 지금껏 어떤 제주도를 만들어 왔는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는 금융과 무역과 빌딩은 있어도 사람은 없었다. 외국에서 국제 전문가들이 와서 제주를 무역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는 하겠

공연의 모티브인 백사전과 관련된 유적이고, 장교(長橋)는 중국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알려져 있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안창현, 『중국 대형 실경 공연』, 91-92쪽). 중국 4대 민간전설은 일반적으로 <견우 직녀> <맹강녀> <양산백과 축영대> <백사전> 네 가지를 꼽는다.

지만, 제주 사람을 키우는 계획은 없었다.

세계자연유산이 된 제주의 환경을 잘 지켜야 한다고 환경수도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의 산과 숲과 용암동굴과 일출봉은 잘 지켜야 한다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슬로건을 본 적이 있는가? 2007년에 ‘칠머리당굿’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지만 그 유산을 전승해 온 심방을 중히 여긴 적이 있던가?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해녀 물질을 자랑하면서 생태계 파괴와 고통 속에서 해녀 숫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적이 있던가? 제주의 전통을 잘 지켜온 사람들을 관심 둔 적이 있던가?

세계적인 자산인 굿과 신화 연구를 위해 제주만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창조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다시 강조한다. ‘사람’이 그 일을 해낸다. <제주문화 연구원>을 만들어 연구자를 키워야 한다.

제주 환경을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인재, 제주 문화를 잘 보존하고 새 시대에 맞게 변용할 수 있는 인재, 관광의 마인드를 잘 알아 사람들에게 제주의 따듯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인재, 전통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파탄을 치유할 수 있는 인재, 제주 자연의 넉넉함으로 세상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제주 전문가를 키우자.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제주문화 비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학 전문가의 양성을 주장한 것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²⁸⁾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제주의 세계적인 문화 자산은 굿과 신화다. 굿과 관련된 이야기(신화), 노래, 춤, 놀이를 무당(심방)도 전통대로 지켜나가야 하지만, 그 예술적 특성을 계승할 후속세대가 필요하다. 제주 음악, 미술, 공예, 건축을 가르칠 전통예술대학이 필요하다. 노래와 춤과 이야기를 가르칠 공간이 필요하다. 제주의 무형 문화를 가르칠 공간을 제주대학에 두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대가 합동으로 전통계승에 앞장서야 한다. 사회인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원처럼 대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제주전통예술을 가르칠 교육원(가칭 <제주 전통문화 교육원>)을 발족시켜야 한다. 대학 교수들

28) 김동진, 『제주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집, 역사문화학회, 2003, 346쪽.

이 이론을, 지역 심방들과 무형문화 전수자들이 실기를 가르치는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2. 문화주체에 대한 탐구

세계 속에 중국과 일본은 있지만 한국은 미미하다. 세계 학문 속에 중국학·일본학은 있지만 한국학은 없다. 중국학을 하거나 일본학을 하다가 결가지로 한국학을 하는 학자가 주류였다. 이제 한국문화가 중국·일본과 더불어 동아시아 문화의 한 축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학·일본학에 견줄 수 있는 한국학을 정립하고, 세계에 안목을 넓히기 이전에 동아시아학을 활용해야 한다.²⁹⁾ 한국학을 정립하기 위해 동아시아학을 활용해야 하듯이, 지역학을 정립하기 위해 한국학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학은 단일체가 아니라 지역학의 복합체다.³⁰⁾ 그러므로 근대국가 주의가 횡행하면서 한국문화에 의해 왜곡·축소된 제주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영남학과 호남학에 견줄 수 있는 제주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국의 위상이 세계 속에 정립되면서 세계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듯이, 제주학에 집중 투자해야 제주의 위상이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 정립되면서 세계화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제주학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제주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주도에도 <제주문화사>란 책 한 권 없는 실정이고 보니,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제주문화의 독자성을 찾는 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문화를 논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당연히 여기거나 과다하게 여긴 때문에 한국문화는 늘 중국문화의 종속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문화를 논하면서 북방적

29) 김유중, 『한국문화의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고찰』,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권 1호, 2009, 269-271쪽.

30) “한국문화의 단일체가 지역문화의 복합체”(조동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화』, 지식산업사, 1999, 18쪽)이라 했듯이 조동일 교수는 한국학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 한국 이하 층위인 지역과, 한국 이상 층위인 동아시아 문명권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향 혹은 일부의 남방적 영향만 주장했기 때문에 정체성 찾기에 실패했듯이,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북방 혹은 남방을 이야기하였지 그 독자성을 논한 바는 적었다. 이제 주체적 사고로 “주관적이면서 자력적인 문화 읽기”³¹⁾가 필요한 때다. 제주문화는 북방의 영향도 있고 남방의 영향도 있지만, 그 독자성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창조적 역량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창조적 영락 갖추기에 나서야 옳다. 연구 태도나 방법론에서 주체적이어야 한다.

무엇이 독자적인가. 북방에도 없고 남방에도 없는 것을 찾는 일이 그것이다. 돌하르방의 정체를 논하면서 몽골의 석상이나 인도네시아의 석상을 논하는 것도 문화적 유사성의 측면에서는 유용한 것이지만, 그토록 많은 석상이 집과 마을 주변에 군집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과 그것의 제주적인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 건국신화 주인공이 하늘에서 오거나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았다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특성이다. 대부분의 건국신화 주인공은 하늘에서 오거나 바다를 건너왔고, 그것은 문명의 이동과 연관된다.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북방에서 남하하거나 서쪽에서 동진하여 이주족이 토착족을 복속시키고 나라를 열었다는 의미이고, 그들은 하늘의 권위를 앞세워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도 농경, 비단, 철기 문명의 전래를 의미한다. 그런데 땅에서 솟았다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변 어디에서도 흔치 않다. 이것은 제주가 독자적인 고대국가를 형성했다는 증거다. 탐라국은 독자적인 문명을 가지고 고대국가를 완성했다. 이런 독자성을 찾아내고 탐라국의 실체를 인정해야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찾아진다. 그래야 제주문화의 세계화도 거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엇이 주체적인가. 제주를 주변부 혹은 변방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중심과 주변, 문화적 주류와 비주류를 넘어서는 문화다원주의를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부나 변방 인식에서 벗어나 제주가 중심이라는 인식을 회복해야 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심부는 바로 제주이고, 천지왕의 아들인 대별왕과 소

31) 임재해, 위의 논문, 443쪽.

별왕이 우주의 변괴를 해결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³²⁾ 세계 어디서나 자기가 사는 곳을 중심이라 여겼다. 제주가 중심이라는 인식은 다른 지역을 주변화 하는가. 아니다. 근대에 제주도민은 제주도민이라는 제1주권이 있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제2, 제3주권이 있다. 제주를 중심으로 동심원적 주권이 확산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제2, 3의 주권보다는 제1의 주권은 인지하며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야 옳다.

3. 정체성 수립 전략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에서 보았듯이 자기 정체성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계화 관점에서 바라본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동일시 과정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주체가 되어 외적으로 확산된다는 적극적 의미³³⁾이긴 하지만, 거기에 시간적·공간적 변화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진정한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문화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로 작동원리가 필요하다. 제주보다 훨씬 큰 세상을 만난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외부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부족한 자아를 보완하고 새로운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정체성 수립 과정이다.

첫째, 전통문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사회적 귀속감이다. 그것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모하는 것이다. 외부의 충격에 자기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오지만 이후 조정 작용을 거쳐 “문화적 동질화 경향에 대항하는 문화적 차별화”³⁴⁾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 세계화의 조류를 거부하지 말고 우리 문화의 바탕 위에 타자의 문화를 잘 받아들여 변화하는 ‘정체성의 선변(善變)’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32)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249-250쪽.

33) 심경호, 『한국문화의 세계화』, 『정신문화연구』 60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60쪽.

34) 윌러 스타인, 김시완 역, 『변화하는 세계체제 : 탈아메리카 문화이동』, 백의, 1995, 254쪽.

전통문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듯이 근대 과학정신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과학이라도 자연과 인간을 죽이는 과학은 배격하고, 미신이라도 자연과 인간을 살리는 미신은 존중’³⁵⁾하는 객관적 안목이 필요하다. 굳이 지닌 인간과학적 원리를 찾는 작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각이다.

둘째, 문화 관련 거대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문화의 개별적인 것들을 촘촘히 연구하여 일반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한국문화 속에는 다양성과 공생성, 순환성의 원리가 있으니 이 생태체제를 잘 조합하여 세계체제로 제시해야³⁶⁾ 한다고 했듯이, 제주문화 속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궁리해야 한다. 안거리와 밖거리 주거문화를 보면, ‘따로 또 같이’라는 미래적 주거 대안문화의 원리가 찾아진다.³⁷⁾ 수놓음이나 켤당 정신은 어디에나 있어 제주의 원리라 할 수 없다. ‘내고-닫고-땀고 푸는’ 입춘굿의 과정을 통해 ‘맞이-풀이(解)-놀이-풀이(和)’의 원리³⁸⁾를 적용하여 제주문화의 원리로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3의 고통을 이기고 번영하여 세계에 화해와 상생의 원리를 전하는 역사의 과정을 상징화하여 ‘세계 평화의 섬’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미완이다.³⁹⁾ 신화의 섬이니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꿈꾸는 원리는

35) 임재해, 위의 논문, 458쪽.

36) 임재해, 위의 논문, 418쪽.

37)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236쪽. 공동체주의는 ‘함께의 논리’이고, 자유주의는 ‘따로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전체의 논리란 것이고, 자유주의는 개별의 논리다. 개별과 전체의 논리는 대립적일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 존재한다.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할 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개별적 관점에서 필요할 땐 개별을 얘기하는 것뿐이다. 굳이 이것을 분리시켜 하나를 절대화시키거나 전체를 절대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다(도법, 『지금 당장』, 다산초당, 2013, 192-193쪽). 이런 측면에서 보면 ‘따로’이면서 ‘함께’인 제주의 주거문화는 중요한 문화 상징이 될 수 있다.

38)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논문, 2007, 113-115쪽.

39) 미국과 중국의 대치상황에서 한국은 평택-군산-목포-제주를 잇는 MD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제주는 더 이상 평화의 섬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음모와 한국 해군의 무력을 이겨내고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시켜, 힘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실현시킨다면 그때 제주는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고, 그런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낸 정신은 ‘제주 정체성의 원리’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각적으로 찾아질 것이다.

셋째, 문화의 이미지화·정보화·기호화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기소르망(Guy Sorman)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은 오랜 전통을 가진 문화국가이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문화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실패했다”고 한 바 있다.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는데, 제주도 마찬가지다. 제주에는 다양한 민속, 해양, 민속 문화가 있다. 한반도와도 차별적이고 동아시아와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이 많다. 말 문화, 돼지고기와 장수 문화, 돌 문화, 해양문화는 제주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아직 원석으로 남아 있다. 제주도는 태평양을 향하는 한반도의 교두보이고, 동아시아 삼국의 중심축에 해당한다. 태평양 섬 공동체를 위한 문화적 연대 작업을 제주가 감당한다면, 제주는 우선 아시아 태평양 섬의 중심으로 거듭 날 수 있다. 그 다음 세계 섬 문화를 논하는 중심축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말과 돌과 해녀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문화를 자연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색과 소리와 향기와 맛을 구현해 낼 필요가 있다. 평화의 섬, 환경수도, 신화 수도의 구호도 이미지화 작업이 필요하고 다각적인 정보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제주문화를 잘 유지 발전시켜 새로운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런 수출과 문화콘텐츠는 제주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문화가 삶 속에 잘 스며들게 한 후 문화콘텐츠를 논해야 하지,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문화를 장삿속으로만 여기고 콘텐츠화하겠다고 한다는 발상은 늘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계를 밟아 문화콘텐츠가 잘 숙성된다면 그것이 역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화의 성취는 역으로 지방화의 성취로 연결된다는 의미라 하겠다.

V. 맺음말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한 국가의 문화 혹은 한 지역의 문화는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지역문화가 세계문화로 이동하는 쌍방향의 과정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국의 두드러진 문화현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계화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계의 문화가 더욱 활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세계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온 세상이 근대화와 세계화로 획일적인 변모를 거듭하여 왔음에도 제주는 갑작스런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고, 나름의 정체성을 잘 지켜온 편이다. 문화적 전통이 지역의 공동체성에서 비롯되는데 제주를 마을 공동체를 잘 지켜온 덕분에 주체적 문화의 세계화도 확실히 가능한 지역이다. 그 공동체성은 마을신앙인 굿과 신화에서 비롯된다. 굿 속에 녹아 있는 신화는 스토리텔링의 근거가 된다. 21세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인 바, 제주를 그 가능성의 전선에 서 있는 셈이다. 그리고 제주 신화는 그리스·로마신화에 비견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것이어서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들고 나설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제주의 음식문화와 거기에 담긴 미래지향적 문명성도 특징적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문화적 속성으로 파탄 난 현대문명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우리가 살던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방식이고, 그래서 새롭게 계승할 대안이 제주에 남아 있어 다행이다.

세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제시했지만, 문화 현상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파악이 있어야 진정한 가능성이 모색될 것이다. 문화를 바라보는 그간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문화적 ‘토대와 근간’을 탄탄히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창조 인력의 양성이다. 제주문화를 연구할 연구자와 연구결과를 활용할 문화전문가가 양성돼야 한다. 문화 연구원과 문화 교육원에서 연구, 기획, 연출, 공연을 담당할 역량이 우선 배양되어야 함을 첫째 조건으로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민족문화는 근대적 민족국가에 치중하면서 지역을 소외시켰고 근대 이전의 문화를 바라보는 데 소홀했다. 한국문화라는 단일체는 지역문화의 복합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제주문화는 소중하다.

그러므로 제역을 변방으로 보지 말고 중심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선 제주사람들이 먼저 제주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의식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체성이란 가장 근원적인 측면이어서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제주문화의 작동원리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본고는 서두에 제주문화의 공동체성을 든 바 있다. 파편화된 현대문명 속에서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함께’의 논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함께’만 존재하면 그 도한 구속이다.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따로’의 논리를 결합하여 ‘함께 하면서 또 따로 하는’ 융합의 원리가 필요한 때다. 제주문화에는 이런 ‘따로 또 함께’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런 문화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찾는 다양한 노력을 기대한다.

문화도 유기체적이어서 사라지기도 한다. 문화가 사라지거나 변모하는 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변시지’ 화백의 그림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위상을 갖는다. 제주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변시지의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제주의 정신에서 제주의 문화 원리를 찾으면 된다. 신화와 음식에서 출발하여 장수문화, 돌 문화, 해양 문화에 대한 적절한 탐구가 있게 되면 제주 문화 역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은영, 『문화상품화된 축제와 이야기 활용』, 『국어문학』 제50집, 국어문화회, 2011.
- 김동전, 『제주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집, 역사문화학회, 2003.
- 김성곤,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화』, 『Comparative Korean Studies』 9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01.
- 김유중, 『한국문화의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고찰』,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 김지순, 『제주도의 음식문화』, 제주문화, 2001.
- 김현선, 『구비문학과 철학의 상관성』, 『구비문학연구』 1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 김형민,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 방안』, 『전북대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심포지움-한국문화의 정체성과 그 세계화 전략』, 전북대 국제문화교류연구소, 2011.
-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2003.
- 도범, 『지금 당장』, 다산초당, 2013.
- 문순덕,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9.
- 박갑수,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그 방안』, 『선청어문』 34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6.
- 박상선, 『스토리텔링이 지역축제의 매력성과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예산옛이야기축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심경호, 『한국문화의 세계화』, 『정신문화연구』 60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안창현, 『중국 대형 실경 공연』, 『인문콘텐츠』 제1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 앤소니 기든스, 박찬욱 역, 『질주하는 세계』, 생각의 나무, 2000.
- 오지섭, 『세계화 시대 한국문화의 정체성』, 『인간연구』 14집,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 윌러 스타인, 김시완 역, 『변화하는 세계체제 : 탈아메리카 문화이동』 백의, 1995.
- 임재해, 『국학의 세계화를 겨냥한 이론 개척과 새 체제 모색』,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2005.
- 제주도, 『탐라문화권 발전기본계획』, (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 _____,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 지식산업사, 1999.
- 좌혜경,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진흥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2.
-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논문, 2007.
- 허남춘, 『제주의 문화가치 확립 방안』, 『제주발전포럼』 제44호, 제주발전연구원, 2012년 겨울.
- _____,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허남춘 외, 『제주의 음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7.
- 현택수,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한국학연구』 제20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4.
- 황경순, 『안동 헛제사밥을 통해 본 전통의 생산과 소비』, 『향토문화』 제18집, 밀양고족보전회,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solution for globalization of the Jeju culture

Heo, Nam-Choon*

While ‘globalization’ becomes the calling of the times, the globalization of the Korean culture says like the basis of the culture industry. The tendency to make much of the area that was a national low rank unit appeared, and Glocalization became a target of the interest. So the Jeju culture has begun to establish interest for the globalization, too.

A globalization strategy of the Korean culture was groped for in various fields for example Art·Tradition·Life culture. There was success that was more rapid than a last century, but still a beginner level. ‘Korean wave’ was formed in a Music·Drama·Movie, and Korea food succeed in a globalization with such situation. Korea put the energe to the culture contents production that utilized traditional culture, and the study to think of identity of the Korean culture consisted lively.

The globalization strategy of the Jeju culture must begin with the identity searching too. And we must look for a principle to operate in the power inside of the Jeju culture. There must be theorization of the culture by the precedent work. So the researcher training for culture studies is required. Next, we must improve an image of the culture. We

* Jeju Univ.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ust concentrate power on the talented person training and culture diffusion at the same time. If it comes to look like this, ability to plan culture, and to direct it, and to give a performance grows up.

A development strategy of culture contents to make culture industry is a topic of the 21st century. A story to become the base of contents is rich in Jeju. The possibility of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is very bright because the folklore myth is a global standard. Also food culture, marine culture, the stone culture can be made the world. There is not only familiarity to cosmopolitan but also uniqueness in Jeju culture. The handhold of the globalization is in Jeju. Therefore operation based on culture such as the culture researcher training and the theorization must be performed.

Key Words : culture, globalization, identity, a community, a myth, storytelling, festival, culture theory, culture contents, Korean wave(韓流).

교신 : 허남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 hnc428@cheju.ac.kr)

논문투고일 2013. 08. 27.

심사완료일 2013. 10. 04.

게재확정일 2013. 10. 23.